

<동정자료>

박선호 차관, “제13호 태풍 링링 철저한 대응” 강조 4일 도로·철도·항공·하천 등 분야별 태풍 대응 사전준비 상황 점검

□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9월 4일(수) 16시 각 상황반*과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는 태풍 대비 상황회의를 개최하였다.

* (국토교통부 상황반) 풍수해종합상황반, 도로반, 철도반, 항공반

○ 이날 회의에서는 제13호 태풍 ‘링링’의 예상진로와 이에 따른 각 상황반의 준비상황, 비상근무체계를 보고 받았고,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응체계 유지를 당부하였다.

□ 지난 2일부터 이어진 강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도로와 철도의 침하 우려가 큰 만큼 시설물 피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, 홍수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해 환경부, 홍수통제소 등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.

○ 이어, 최우선 목표는 국민의 안전이므로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기 결항, 열차 운행중단도 적극 검토하여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하였다.

- 다만, 이런 경우에는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항 및 운행 중단 사실을 신속히 안내하고 교통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.

○ 또한, 국토부 시설물 외 지자체 시설물에 대해서도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장비·자재·인력 등을 최대한 지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□ 마지막으로 박선호 차관은 “태풍의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긴장감과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빈틈없는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2019. 9. 4.

국토교통부 대변인